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ISSN 2093-311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http://iit.kita.net)



# TRADE FOCUS

2018년 39호

## 실리콘밸리를 통해 본 스타트업 트렌드

2018년 11월

무역전략실 김보경 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 CONTENTS

[요약]	i
I. 스타트업의 산실, 미국 실리콘밸리	
1. 연구배경	01
2. 연구목적	02
II. 미국 실리콘밸리의 주요 스타트업 트렌드	
1. 기술	03
2. 시장	10
3. 투자	20
III. 결론 및 시사점	24

보고서 내용 문의처

무역전략실 김보경 연구원 (02-6000-5177, bkkim36@kita.net)



## 요 약

오늘날 미국 실리콘밸리는 공유경제, 자율주행차 등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되고 우버, 에어비앤비 등 세계적인 스타트업들이 탄생한 곳으로 명실상부 스타트업의 중심지이다.

스타트업의 미래지표가 될 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기술, 시장, 투자 동향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스타트업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스타트업 트렌드>

구분	트렌드
기술	<b>글로벌 IT기업 주도로 혁신의 AI 기술 생태계 형성</b>
	① 실리콘밸리는 AI 연구와 산업화의 선도기지 ② 글로벌IT 기업 - AI 스타트업 - 대학기관 간 선순환 연결고리를 구축
시장	<b>구독, 온디맨드 등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성공모델의 확산</b>
	① 콘텐츠 정기구독 뿐 아니라 제품 정기배송까지 확산되는 구독모델 ② 오프라인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촉진하는 온디맨드 모델
투자	<b>스타트업 투자 허브로서의 실리콘밸리 위상 변화</b>
	① 실리콘밸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허브 ② 최근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이 새로운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

기술 측면에서 실리콘밸리는 미래 핵심 기술로 부상한 인공지능(AI)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원천기술부터 응용서비스 개발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산업화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AI 기술력 강화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해 AI 인재영입, AI 스타트업 M&A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기관 및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AI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는 넷플릭스(Netflix), 우버(Uber)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로 시작해 시장을 뒤흔들었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이제 스타트업 성공사례이자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구독(넷플릭스), 온디맨드(우버) 모델이 다양한 스타트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콘텐츠 정기구독 모델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커머스와

결합해 정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커머스 비즈니스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생활 서비스, 물류 등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화·플랫폼화하는 온디맨드 스타트업도 활발하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의 경우 실리콘밸리는 다른 도시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며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실리콘밸리 혁신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등을 중심으로 중국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액과 유니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스타트업 투자 허브로서의 실리콘밸리 위상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시장, 투자 등 각각의 트렌드는 상호 연계되어 향후 스타트업 동향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구독·온디맨드 모델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향후 비즈니스 경쟁력은 모델 자체보다 큐레이션(구독), 수요·공급 매칭(온디맨드)을 정교화할 수 있는 AI 기술력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등 새로운 스타트업 허브에서 구독·온디맨드 관련 시장은 더 세분화될 것이며 실리콘밸리의 중국 스타트업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실리콘밸리의 AI 선순환 생태계는 중국 AI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되면서 더욱 글로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실리콘밸리 트렌드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실리콘밸리와 같이 AI 스타트업과 대기업, 대학기관을 연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며 스타트업 규제 환경 개선을 통해 온디맨드 모델과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스타트업 투자처가 실리콘밸리에서 다변화되는 추세로 글로벌 스타트업 동향을 주시함으로써 새로운 스타트업 시장 기회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문





# I. 스타트업의 산실, 미국 실리콘밸리

## 1. 연구배경

- 오늘날 미국 실리콘밸리는 공유경제, 자율주행차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되고 우버, 에어비앤비 등 세계적인 스타트업들이 배출된 곳으로 독보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이자 비즈니스 트렌드의 중심지임
  - 실리콘밸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남쪽(South Bay)의 산호세(San Jose), 팔로알토(Palo Alto) 지역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확대 사용되고 있음
  - 미국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 경쟁력 부문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계 가치는 2,640억 달러로 서울(24억 달러)의 100배 이상을 기록(StartupGenome, 2017)
    -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인 유니콘 중 약 15%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해당함(CB Insight, 2017)
- 실리콘밸리의 탄탄한 산업기반, 풍부한 투자자본, 높은 기술수준, 우수한 인력, 개방적인 문화 등은 혁신적인 스타트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 (산업)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의 혁신을 성장동력으로 보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 (투자) 실리콘밸리에는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창업자금이 풍부(Silicon Valley Institute for Regional Studies, 2018)
  - (기술) 인터넷·모바일 기술의 근원지이자 클라우드, 인공지능(AI)의 알파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모두 실리콘밸리에서 등장

- (인력) 스탠포드, UC버클리 등 세계적인 경쟁력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을 뿐 아니라 교육수준도 미국 전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음
  - 실리콘밸리 거주자의 약 50%가 학부 이상의 고학력 졸업자로 미국 평균 (31%) 대비 매우 높은 수준(Silicon Valley Institute for Regional Studies, 2018)
- (문화) 실리콘밸리 주민의 38%가 외국 태생 이민자로(Silicon Valley Institute for Regional Studies, 2018) 개방적·역동적인 문화는 창의적인 혁신가의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신제품을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가 많으며 테슬라(Tesla)의 전기차, 애플(Apple)의 스마트폰 등은 실리콘밸리 초기 수요자를 기반으로 사업 확장에 성공

## 2. 연구목적

- 선도적인 스타트업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의 기술, 시장, 투자 동향 분석을 통해 현재 스타트업 트렌드를 조망하고 한국 스타트업계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기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및 경쟁우위 강화 전략 분석
- (시장)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 구독(Subscription) 모델, 온디맨드(On-demand) 모델 분석 및 적용 사례 연구
- (투자) 실리콘밸리와 베이징 등 다른 스타트업 도시 간 스타트업 투자 현황 글로벌 비교

## Ⅱ. 미국 실리콘밸리의 주요 스타트업 트렌드

### 1. 기술 - 글로벌 IT기업 주도로 혁신의 AI 기술 생태계 형성

- 미래 혁신 동력으로 AI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AI 스타트업 투자 및 인수합병 확대, AI 산학협력 강화, 데이터 접근성 개선 등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음
-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IT 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선순환 고리(‘투자→스타트업 성장→투자자금 회수→재투자’)는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① 실리콘밸리는 AI 연구와 산업화의 선도기지

- 실리콘밸리는 미래 핵심 기술로 부상한 AI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원천기술부터 응용서비스 개발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산업화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
  - 인공지능은 인지, 학습 등 인간의 지적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통해 구현한 지능으로 단순 신기술 차원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증기기관, 전기 등과 같이 ① 다른 분야로 급속히 확산, ② 지속적 개선 가능, ③ 혁신을 유발하여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범용기술로서의 특성을 보유
    - 도입 단계의 AI기술이 상용화 단계로 발전하면서 파괴적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 것으로 전망
- \* 인공지능 세계시장 규모(IDC, 2017) : ('16) 78.1억 달러 → ('21) 522억 달러

- 미국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인공지능 연구자 수, 인공지능 최상위 발표 논문과 특허, 인공지능 연구 역량, 기술 수준, 투자 금액 등 모든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며 경쟁국을 압도하고 있음<sup>1)</sup>

## ■ 최근 중국이 AI 기술에 적극 투자하면서 미국과 양강 구도의 경쟁자로 부상

- 중국의 AI 역량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어 미래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sup>2)</sup>도 있음
  - 중국 정부는 '30년까지 AI 핵심산업 1조 위안(약 180조원), 연관산업 10조 위안 규모의 시장육성을 목표로 국가 주도적으로 AI 기술 발전에 나서고 있음
    - \* 인터넷 플러스 AI 3년 협동 실시 방안('16)',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계획('17.7)' 등
  - BAT(Baidu, Alibaba, Tencent) 등 중국 IT대기업들은 AI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 알리바바는 2020년까지 AI 연구개발(R&D)에 150억달러(약 16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5개 국가에 8개의 AI 연구센터를 세우고 글로벌 AI 전문가 3만 명을 포함하는 'AI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함

## ■ 하지만 현재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역량은 중국의 2배로 미국의 경쟁우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하드웨어', '데이터', '알고리즘', '상업화' 등 네 가지 방면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한 결과 중국은 '데이터'에서만 우위를 보이고 나머지 세 영역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됨
  - AI 하드웨어 분야의 경우 미국은 반도체 생산, FPGA<sup>3)</sup> 생산기업 투자 유치 등에서 세계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며 한 자리 수 점유율인 중국을 압도

1) Aminer.org, 클래리베이트 AI보고서, WIPS, 한국정보화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등 자료 종합

2) 중국은 AI 분야에서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Forbes, '17)

3)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인공지능 칩

- 중국의 AI 연구 인력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연구 발표 성과 측면에서 아직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AI 기업 수 1위인 미국의 세계 시장 비중이 42%에 달하는 반면 2위인 중국은 23%에 불과
- 중국의 데이터 분야 경쟁우위는 낮은 프라이버시 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AI 기술 발전에 필요한 빅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이점으로 작용

<미국과 중국 간 AI 경쟁력 비교>

주요 분야	주요 측정지표	미국	중국
하드웨어	반도체 생산 점유율(2015)	50%	4%
	FPGA 칩 생산 투자유치액(2017)	19억 달러(42.4%)	3억 달러(7.6%)
데이터	모바일 유저 수(2016)	40억 명(5.5%)	140억 명 (20%)
연구와 알고리즘	AI 전문가 수	78,700 명(26.2%)	39,200명(13.1%)
	AAAI <sup>4)</sup> 컨퍼런스 발표 비중	48.4%	20.5%
상업화	AI 기업 수 비중(2017)	42%	23%
	AI 기업 총투자액(2012-2016)	1720억 달러(43.4%)	260억 달러(6.6%)
	AI 스타트업 투자액(2017)	38%	48%
AI 잠재력 점수 <sup>5)</sup>		33점	17점

주 : 비중 및 점유율은 글로벌 시장 기준

자료 : Jeffrey Ding, "Deciphering China's AI Dream", Future of Humanity Institute, University of Oxford, 2018

## ② 글로벌 IT 기업 - AI 스타트업 - 대학기관 간 선순환 연결고리를 구축

■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AI 기술력 강화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해 AI 인재영입, AI 스타트업 M&A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 초기단계인 미래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AI 연구인력 확보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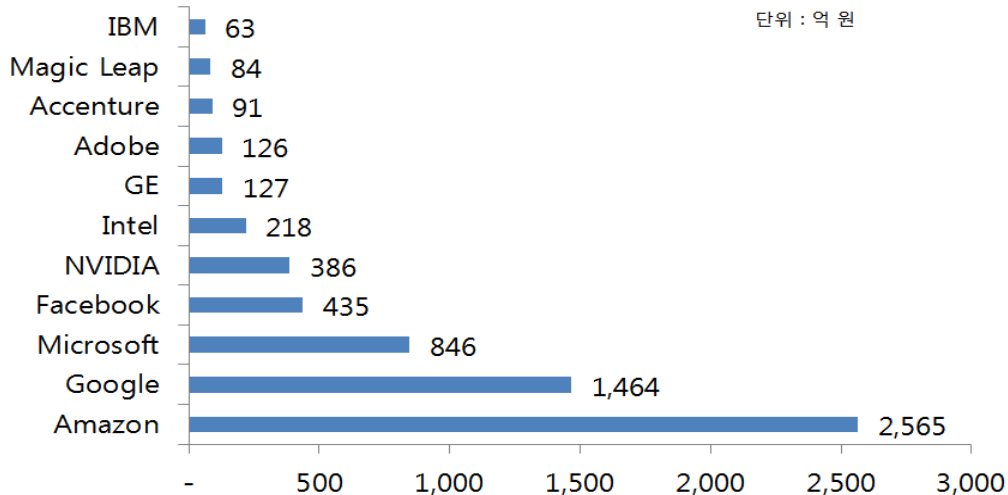
4) AAA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 관련 학회

5) AI 잠재력 지표(AI Potential Index, AIPDI)는 4개 분야 평균 점수 합산으로 계산

- 아직 학계와 산업 간의 차이가 적고 많은 알고리즘이 논문 및 오픈소스로 공개되며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AI 연구역량이 중요하게 작용

\* 아마존은 연간 약 2,600억 원을 투자해 평균 1,178명의 AI 인력을 확보함

<주요 실리콘밸리 기업이 인공지능 인력 확보에 투자한 금액>



자료 : Paysa, 2017

- 기술력, 인재, 데이터,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선점할 수 있는 AI 스타트업 M&A를 핵심 전략으로 운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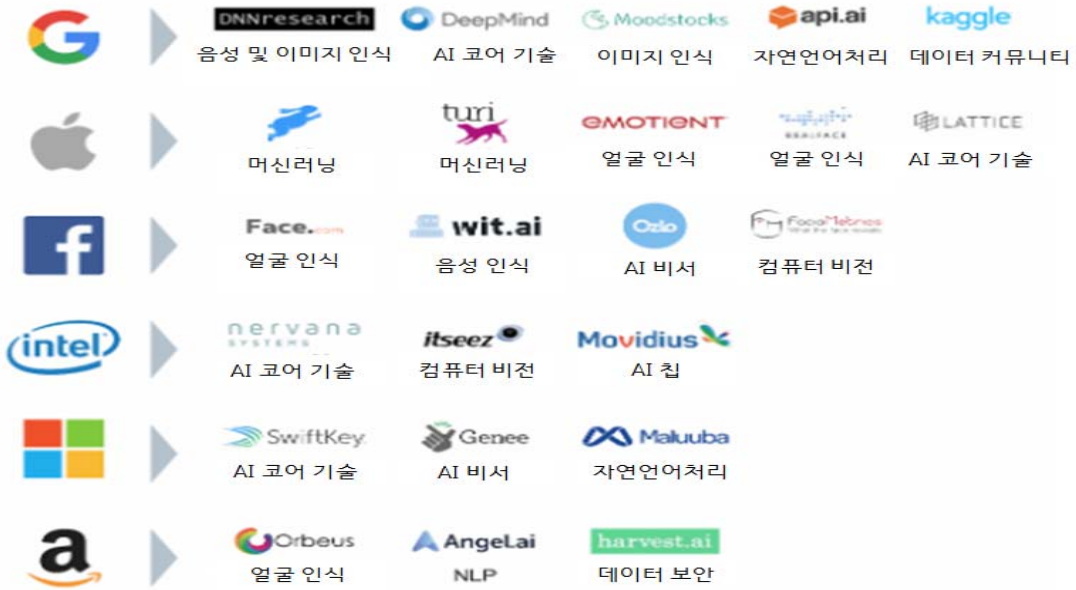
- AI 핵심 기술과 인재의 경우 내부에서 단기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AI 스타트업 M&A가 빠른 경쟁력 확보에 도움

<AI 기술력 확보에 있어 자체 R&D 대비 M&A의 장점>

- (기술범위 확대) 외부로부터 기술을 확보하는 M&A는 자체 R&D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기술 확보가 용이함
- (비용 · 위험 절감) R&D를 위한 인력과 설비비용 절감뿐 아니라 환경변화에 뒤따르는 위험도 통제 가능
- (프로세스 단축) 필요에 따라 기술을 아웃소싱함으로써 상업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구글, 애플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미래 사업방향에 맞춰 AI 기술 세부 분야를 구분해 전략적으로 AI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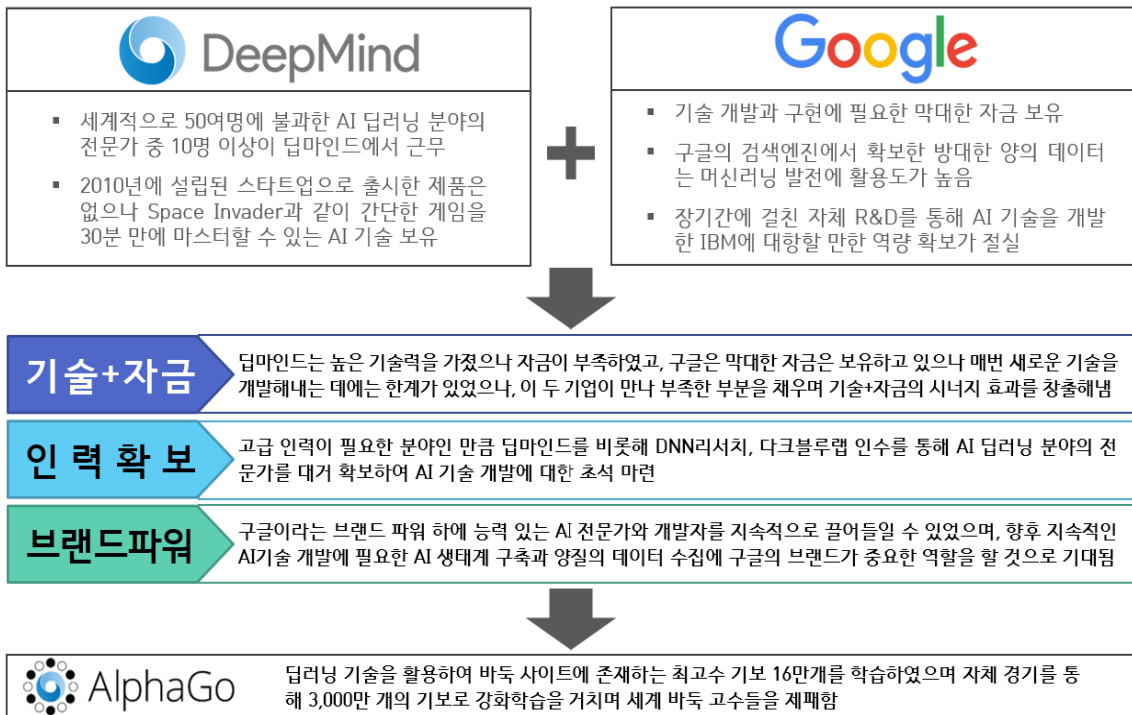
<실리콘밸리의 AI 세부 기술별 주요 스타트업 인수합병 현황>



자료 : CB Insights, 2017

- 구글의 경우 AI 스타트업 딥마인드 M&A를 통해 초기 단계였던 AI기술을 2년 만에 알파고로 구현하였으며, 현재 구글의 여러 사업에 적용하고 있음

<구글의 AI 스타트업 딥마인드 M&A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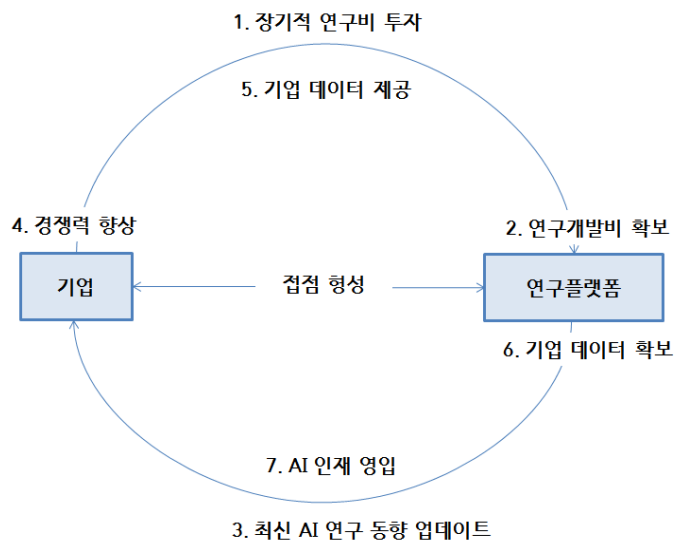
<구글의 딥마인드 M&A를 통한 기술 적용 사례>

적용 사례	설명
데이터센터 전력 관리	구글 딥마인드의 AI 신경망이 데이터센터 내 수천 개 센서를 통해 수집해 온 데이터를 학습한 후 데이터센터의 미래 기온과 압력을 예측. 예측치에 따라 필요한 냉각 작업을 추천하여 냉각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40%까지 절감
어플리케이션 추천	AI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성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하는 기능을 구글 플레이에 더하여 추천 앱 설치율이 기존보다 20% 증가
가상 비서 서비스	가상비서 서비스의 음성이 보다 사람의 음성과 가깝게 구현될 수 있도록 딥마인드의 AI 모델인 WaveNet을 적용

■ 대학기관 및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AI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 기업과 연구·대학기관 간의 산학협력은 실리콘밸리의 AI 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스탠포드, UC버클리 등 AI 관련 연구 기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AI 연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플랫폼을 구축
  - 이러한 연구 플랫폼은 기업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조기에 적용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

<실리콘밸리의 AI 연구 플랫폼 선순환 고리 구축 효과>





- ① 실리콘밸리 기업은 AI 연구플랫폼에 연구비를 장기 투자해 상호접점을 형성
- ② 연구플랫폼은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산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
- ③ 기업은 연구실에서 개발·진행 중인 최신 AI 기술 정보를 빠르게 습득
- ④ 기업은 최신 AI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
- ⑤ 기업은 자사의 데이터를 연구 플랫폼에 제공하여 추가적인 협력 연구를 진행
- ⑥ 연구 플랫폼은 제공받은 대량의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AI 기술력을 향상
- ⑦ 기업은 연구 플랫폼의 연구자를 영입하며 투자-연구의 강한 선순환 고리 형성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참고 재정리

-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AI 기술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실리콘밸리 기업들 간 데이터 전송 프로젝트(DTP)를 론칭
  - DTP는 온라인 서비스 간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운 받은 후 타 온라인 서비스로 직접 전송이 가능함
    - \* 기존에는 한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친구 목록이지만 DTP가 런칭될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앱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됨
  -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재생 목록, 사진과 동영상 등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데이터 확보가 용이해져 AI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 국내뿐 아니라 해외 대학 연구소 및 바이두와 같은 중국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AI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 (페이스북) 프랑스 파리에 AI 연구실 설치 (구글) 몬트리올 대학에 머신러닝 연구실 설치 (엔비디아) 국립 대만대학교에 AI 실험실 설치

#### <실리콘밸리 기업과 중국 기업 간 AI 관련 파트너십>

실리콘밸리 기업	중국 기업	AI 관련 파트너십
엔비디아	바이두	· AI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기술,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동 연구 시행 ·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바이두 클라우드에 사용
퀄컴	바이두	· 사물인터넷 및 모바일 단말용 인공지능 음성비서 공동 개발 ·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AI 하드웨어를 바이두의 운영체제인 듀얼오에스(DuerOS)에 적용
인텔	바이두	· AI, 5G,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 등 기술 공동개발 · 5세대(5G) 이동통신과 AI를 결합한 실험실을 중국에 설립

## 2. 시장 - 구독, 온디맨드<sup>6)</sup> 등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성공모델의 확산

■ 넷플릭스(Netflix), 우버(Uber)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로 시작해 시장을 뒤 흔들었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이제 스타트업 성공사례이자 기술 경쟁우위를 지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함

● 넷플릭스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정교한 구독 모델을 구축하면서 시장 1위 기업이던 블록버스터(Blockbuster)를 끌어내리고 1억명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해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 넷플릭스의 월정액 7.99달러~11.99달러의 무제한 구독 모델은 미디어 콘텐츠 소비방식 자체를 스트리밍 형태로 변화시킴

- 고객의 넷플릭스 이용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인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고 자체 콘텐츠도 제작해 공급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 <넷플릭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997년 실리콘밸리에서 CEO 리드 헤스팅즈 (Reed Hastings)가 설립. 기업가치 1,000억 달러</li><li>● 영화, TV 등 라이선싱을 통한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 공급</li><li>● 일정기간 이용료를 내면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별 취향에 따라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li></ul>
---	--


● 우버는 차량 소유 없이 차량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플랫폼 기반의 온디맨드 (On-demand) 모델로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sup>7)</sup>으로 성장했으며 최근 자율주행 택시 개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음

6) 온디맨드(On-demand)란 수요자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주문형,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

7)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 우버는 직접 고용 대신 차량 소유자들과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량 공유라는 교통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었으며 각 이코노미 (Gig Economy)<sup>8)</sup>로의 변화를 촉진함
  - \* 2025년까지 각 이코노미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 세계 GDP의 2%(2조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Mckinsey, 2015)
- 운송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앱 서비스 우버이츠(Uber eats)등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하고 있으며 자율주행택시, 에어택시 개발과 같이 운송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산업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음

#### <우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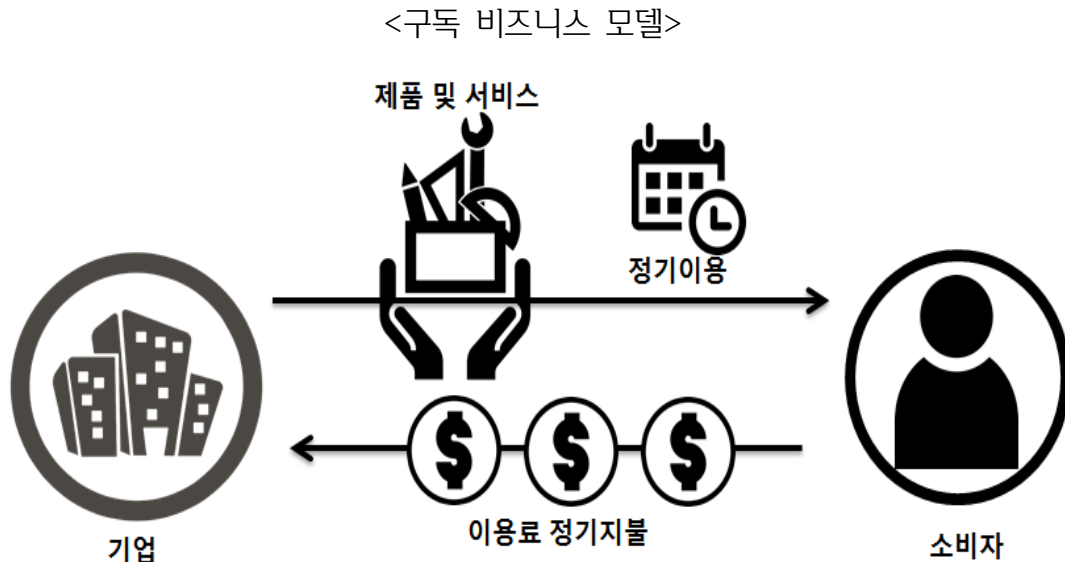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실리콘밸리에서 트래비스 칼라닉 (Travis Kalanick)이 설립. 기업가치 720억 달러</li> <li>● 차량을 소유한 개인과 차량이 필요한 개인을 스마트폰 앱 하나로 연결</li> <li>● 모바일 기술 및 IT 인프라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li> </ul>
--	--

- 넷플릭스의 구독모델, 우버의 온디맨드 모델의 시장 경쟁력이 입증됨에 따라 넷플릭스화(Netflixication), 우버화(Uberization)를 도입하는 스타트업들이 활성화 되고 있음
  - (구독) 넷플릭스처럼 디지털 콘텐츠 무제한 이용 서비스, 실물제품과 결합해 정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이커머스 등이 있음
-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일시구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은 정기적, 규칙적 현금흐름 창출로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8)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높은 사회를 의미. 각(Gig)'은 과거 각종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온디맨드 경제의 확산과 함께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단기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주로 의미함

- 특히 구독 모델에서는 고객 취향 및 소비행동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큐레이션 서비스가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의 접목을 통해 더욱 고도화되며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미국에서 구독 이커머스의 55% 이상이 큐레이션 기반으로 운영(Mckinsey,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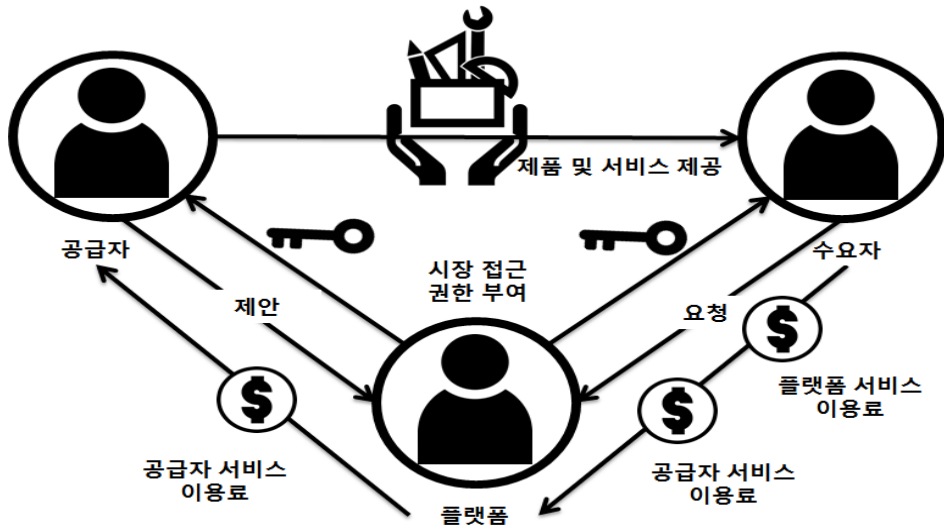


자료 : 연구자 작성

- (온디맨드)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와 즉각적인 매칭을 진행해주는 매치 메이커(Match-making)형 양면시장<sup>9)</sup> 플랫폼 모델로 볼 수 있음
- 온디맨드 스타트업은 수요자(우버 탑승객), 공급자(우버 드라이버) 등 서로 다른 두 고객에게 참여 유인을 제공하여 양면시장을 형성
- 양면시장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 후발주자가 경쟁하기 어려운 승자독식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온디맨드 모델을 지향하고 있음

9) 하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이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하는 시장으로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해당 상품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특징(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짐

<온디맨드 비즈니스 모델>



자료 : 연구자 작성

① 콘텐츠 정기구독 뿐 아니라 제품 정기배송까지 확산되는 구독모델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로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구독모델은 온라인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소비자들이 구매보다 다양한 사용경험을 중시하게 되면서 소유권(ownership)에서 사용권(usership) 기반의 구독경제로 제품 및 서비스 이용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구독경제 시장규모 (크레디트스위스, 2015) : ('15)4,200억 달러 → ('20)5,300억 달러

- 미국의 이커머스 이용자 중 약 50%가 구독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Mckinsey, 2018) 구독 모델은 콘텐츠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뉴욕타임즈 등 기존 콘텐츠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구독 모델을 활용하면서 30% 이상의 구독자 수 증가율을 달성

###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관련 주요 기업>

기업명	산업	구독자수(백만)	전년 대비 성장률
넷플릭스(Netflix)	비디오	118	+25%
스포티파이(Spotify)	음악	71	+48%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Sony PlayStation Plus)	게임	34	+30%
드랍박스(Dropbox)	파일공유	11	+25%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미디어	3	+43%
스티치픽스(Stitch Fix)	패션	3	+31%
리갈줌(LegalZoom)	법률 서비스	0.6	+16%
펠로톤(Peloton)	헬스케어	0.2	+173%

주 : 구독자수는 2017년 기준

자료 : "Internet Trends 2018 Report", Mary Meeker, 2018

-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와인 등 오프라인 이용이 보편적이었던 제품들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구독 기반 이커머스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음

### <구독 기반 이커머스 스타트업>




자료 : CB Insights, 2017

- 스타트업에도 넷플릭스처럼 콘텐츠 정기구독 모델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커머스와 결합해 정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커머스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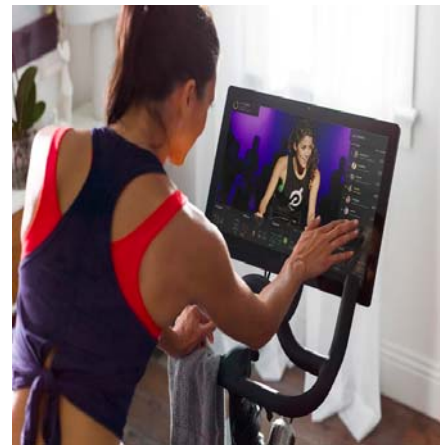
- (정기구독) 월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영화, 드라마 등 디지털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보는 넷플릭스 모델이 의료, 헬스케어 콘텐츠 등 서비스에 적용
- 실리콘밸리 의료 스타트업 포워드(Forward)는 월 149달러로 무제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모델을 운영 중

<구독 모델 스타트업 ① - 포워드(Forw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출신들이 2017년 창업한 의료 스타트업으로 넷플릭스처럼 회원제로 운영</li> <li>● 월정액 149달러(약 17만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넷플릭스에서 수시로 영화를 보는 것처럼 24시간 언제든지 무제한 건강검진 및 진료 가능</li> <li>● 진료후에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공해 건강 관련 활동량을 모니터링하거나 앱으로 24시간 의사, 간호사와 상담 가능</li> <li>●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 세일즈포스닷컴 CEO 마크 베니오프 등이 1억1000만 달러를 투자함</li> </ul>
--	--


- 펠로톤(Peloton)은 실내 자전거라는 전통적 기구에 넷플릭스식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구독 모델 스타트업 ② - 펠로톤(Pelo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창업한 펠로톤(Peloton)은 실내자전거와 무제한 운동수업 동영상 콘텐츠를 결합한 '펠로톤 인터랙티브'라는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출시해 4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2019년 상장을 준비 중</li> <li>● 약 2000달러짜리 실내 자전거를 구매하고 월 39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자전거에 부착된 스크린으로 약 4000개의 동영상 수업을 시청할 수 있음</li> <li>● 기존 피트니스센터 멤버십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100만명의 가입자를 모았으며 연매출 1억7000만달러 이상을 달성</li> </ul>
---	--

- (정기배송) 콘텐츠 외에도 실물제품을 구매하는 이커머스와의 결합을 통한 정기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음
- 영양제(케어오브), 과자(스낵네이션) 등 일상 생활재 시장에도 관련 스타트업이 나타나며 구독 대상이 세분화되고 있음

### <구독 모델 스타트업 ③ - 케어오브(Care/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창업한 케어오브(Care/of)는 전문의와 약사의 진단을 통해 고객의 건강상태, 개선목표 등에 맞는 영양제를 조합해 정기 배송</li> <li>● 40개 이상의 설문에 답한 고객을 대상으로 식습관, 운동상황, 음주, 흡연 여부 등을 파악하고 기력회복, 피로회복, 피부관리, 다이어트,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등 고객의 취향에 맞는 영양제를 약 29달러에 제공</li> <li>● 연 매출 2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가 시리즈B 펀딩에 참여</li> </ul>
--	---

### <구독 모델 스타트업 ④ - 스낵네이션(Snack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설립된 과자 구독 커머스 스타트업 스낵네이션(SnackNation)은 회원 기업들의 사무실로 회사규모에 맞는 박스에 과자를 정기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li> <li>● 일반 매장보다 약 4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며, 당과 나트륨이 적고 밀가루를 적게 쓴 과자, 견과류 등 건강에 좋은 과자 중심으로 구성</li> <li>● 고객이 싫어하는 과자들을 철저히 분석해 고객 니즈에 맞는 과자들을 선별하고 과자 신상품들을 추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제공</li> <li>● 3년만에 연매출 470만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해 현재 1,000여개 회원사를 보유</li> </ul>
---	--



## ② 오프라인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촉진하는 온디맨드 모델

### ■ 모바일의 발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연결이 촉진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온디맨드 비즈니스가 발달

- 온디맨드 비즈니스는 자산 보유나 고용 없이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의미
  -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즉시 접속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고 위치기반기술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이 감소하면서 고객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기업에서 유희자원을 가진 개인으로 확대 되었으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으로 서비스의 편리성 및 즉시성을 극대화
- 온디맨드 모델은 유희 자산을 제공하는 숙박업·금융업 등에서 유희 시간·재능·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음
  -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유희숙소 대여서비스, 렌딩클럽(Lending Club)과 같은 핀테크 기반 P2P대출도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
  - 주차·육아 등 전문화 정도가 낮은 서비스부터 법률·의료 등의 전문 서비스 까지 고객이 원하는 때에 단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운영 중

#### <서비스 분야 주요 온디맨드 스타트업>

분야	내용	주요 스타트업
숙박	개인의 주거공간을 타인에게 숙소로 대여	에어비앤비(Airbnb)
금융	P2P(개인간) 대출 플랫폼	렌딩클럽(Lending Club)
주차	발렛파킹 서비스	럭스(Luxe)
육아	보모 연결 서비스	어반시터(Urban Sitter)
법률	적임 변호사 연결 서비스	악시움(Axiom)
의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왕진 서비스	힐 페이지(Heal Pager)

자료 : POSRI 참고 재정리

■ 스타트업들은 온디맨드 모델을 통해 생활 서비스, 물류 등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화·플랫폼화하고 있음

- (생활 서비스) 스쿠터, 애견, 세탁 등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 시장에서 온디맨드 모델을 통한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 및 비즈니스 최적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전기스쿠터 온디맨드 스타트업 버드(Bird)는 스쿠터 충전시 5~20달러의 보상을 제공하는 포켓몬고와 같은 유인 시스템으로 10대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창업 10개월만에 미국에서 수백만명의 이용자 수를 달성

<온디맨드 모델 스타트업 ① - 버드(Bi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에 설립된 실리콘밸리 스쿠터 온디맨드 기업으로 스쿠터의 우버라고 불리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li> <li>● 이용자는 버드앱으로 가까운 스쿠터를 찾아 1회 1달러, 분당 15센트의 사용료를 지불해 사용한 후 자유롭게 스쿠터를 두고 갈 수 있음</li> <li>● 버드 헌터 (Bird Hunter)들이 도시 곳곳을 다니며 길에 버려진 스쿠터를 수거하여 충전한 후 버드 네스트 (Bird Nest)라고 부르는 지정장소로 가져다 놓으면 버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음</li> </ul>
--	---

- 반려동물 온디맨드 스타트업 로버(Rover)는 약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반려동물 시장에서 펫시터(Pet sitter, 반려동물 돌보미)라는 새로운 프리랜서 직업군을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로 인기를 끌고 있음

<온디맨드 모델 스타트업 ② - 로버(Ro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설립된 반려동물 온디맨드 스타트업으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돌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10억 달러의 기업가치로 평가</li> <li>● 지역의 펫시터와 반려인들을 연결해주고 바쁜 반려인들을 위한 산책 서비스를 제공</li> <li>● 이용자가 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면 펫시터(Pet sitter)들이 일정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음</li> </ul>
---	--

- 린스(Rinse)는 자체적인 세탁시설 없이 인접 지역의 세탁시설을 활용한 서비스로 영세규모의 세탁 시장을 효율화

<온디맨드 모델 스타트업 ③ - 린스(Rin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설립된 실리콘밸리 세탁 서비스 온디맨드 스타트업</li> <li>● 고객이 앱을 통해 세탁물 픽업을 요청하고 린스는 세탁물을 수거해 위치와 용량에 따라 세탁 파트너 업체에게 분배</li> <li>● 업체는 각 가정별로 세탁물을 처리한 후 다시 린스 창고로 보내 린스의 알고리즘에 따라 가정으로 배송</li> </ul>
---	--

● (물류)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영역이었던 음식 배달서비스도 라스트 물류사업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온디맨드 모델을 통해 최근 빠르게 온라인화되고 있음

- 프리랜서 배달원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매개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음식 픽업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음식점들에게는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

\* 세계 배달시장 온라인 비중 변화 (Mckinsey, 2016) : ('12) 8% → ('18) 47% → ('20) 58%

#### <온디맨드 모델 스타트업 ④ - 도어대쉬(Doordash)>



- 2013년 설립된 실리콘밸리 음식배달 온디맨드 스타트업으로 약 1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
- 보온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미 항공우주국(NASA) 특수은박지로 음식을 포장하고 보온가방으로 배달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에서는 3km이내 장소의 경우 로봇배송을 실시중
- 2017년 매출성장을 130%을 기록했으며 편의점 음식·꽃·주류 배달 등으로 사업 확장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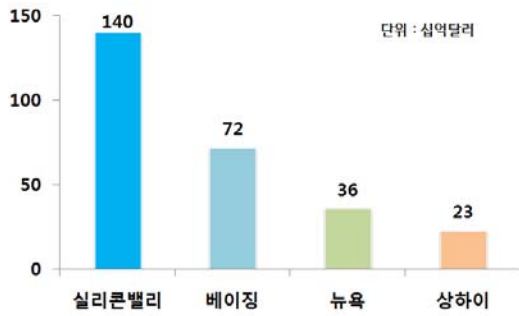
### 3. 투자 - 스타트업 투자 허브로서의 실리콘밸리 위상이 변화

#### ① 실리콘밸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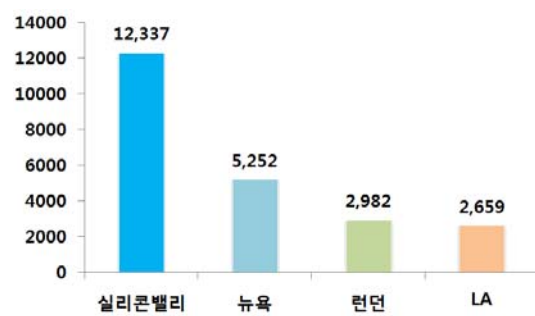
##### ■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은 투자유치 부문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

-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스타트업 투자 금액 및 건수 기준으로 다른 도시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은 총 1,4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위인 베이징 스타트업과 비교했을 때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
  - 약 7,000여개의 스타트업이 12,000여 건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스타트업 도시의 투자유치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음

<스타트업 투자 유치금액 상위 도시>



<스타트업 투자 유치건수 상위 도시>



주 : 2012.1-2018.5.20. 기간 합산

자료 : CB Insights

## ② 최근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이 새로운 스타트업 허브로 빠르게 부상

■ 최근 실리콘밸리 혁신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실리콘밸리가 장기간 스타트업 허브로서의 위치를 유지한 점이 오히려 스타트업 혁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
  - 실리콘밸리 창업자에 따르면 집값,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다른 도시 대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비용 부담이 4배에 달함(Economist, 2018)
    - \* 실리콘밸리 주택 가격의 중간값인 94만 달러는 미국 평균의 4.5배이며 구글, 페이스북 등 IT기업은 신입직원 급여로 최소 1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음
  -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주목받던 스타트업들이 초기단계에서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에 의해 모방·제거되면서 경쟁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은 투자유치액이 감소한 반면 유럽(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아시아(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 신흥 스타트업 생태계는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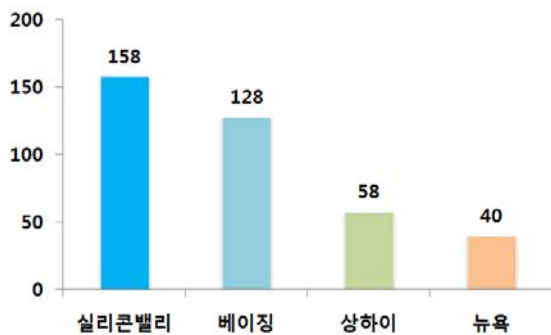
### <스타트업 생태계별 투자유치액 증감 비교>



주 : 2014-2015 총 투자액과 2016-2017 총 투자액을 비교  
 자료 : CB Ins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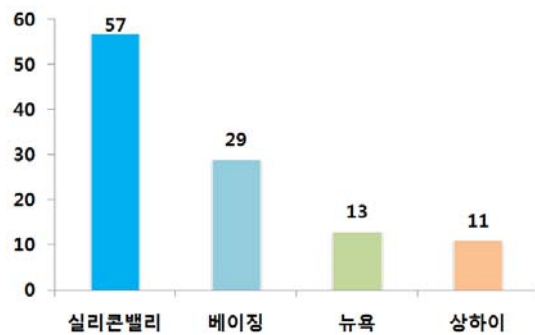
- 특히 중국 스타트업들의 약진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유니콘 수가 증가하면서 중국이 최근 스타트업 투자 유치액에서 미국을 추월
  - 디디추싱(Didi Chuxing) 등 많은 중국 스타트업들이 메가 투자 라운드<sup>10)</sup> 를 달성하고 유니콘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베이징이 실리콘밸리를 위협하는 스타트업 투자허브로 부상함

<1억달러 이상 투자 라운드 총 건수>



주 : 2014- 2018.5.20. 기준  
 자료 : CB Insights

<상위 도시별 유니콘 보유 갯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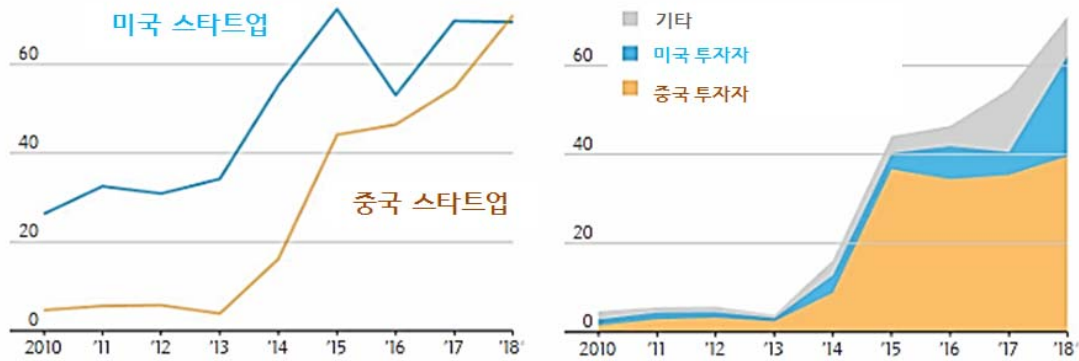
주 : 2018.5.20. 기준  
 자료 : CB Insights

10) 스타트업 투자유치 단계에서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를 의미

- 실리콘밸리 등 미국 벤처캐피탈들도 실리콘밸리가 아닌 중국 스타트업으로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면서 최근 중국 스타트업 투자액이 미국을 상회

\*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은 2013년 50% 이상을 실리콘밸리 외 지역의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나 2018년 현재 62%로 증가(Economist, 2018)

<벤처캐피탈의 미·중 스타트업 투자액> <중국 스타트업 투자 참여 미·중 투자액>



주 : 2018.9.30. 기준, 십억달러 단위  
 자료 : WSJ, 2018

## IV. 결론 및 시사점

- 스타트업 중심지인 실리콘밸리 동향 분석을 통해 기술, 시장, 투자 측면에서 다음을 주요 트렌드로 도출

### <실리콘밸리의 주요 스타트업 트렌드>

구분	트렌드
기술	<b>글로벌 IT기업 주도로 혁신의 AI 기술 생태계 형성</b>
	① 실리콘밸리는 AI 연구와 산업화의 선도기지 ② 글로벌IT 기업 - AI 스타트업 - 대학기관 간 선순환 연결고리를 구축
시장	<b>구독, 온디맨드 등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성공모델의 확산</b>
	① 콘텐츠 정기구독 뿐 아니라 제품 정기배송까지 확산되는 구독모델 ② 오프라인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촉진하는 온디맨드 모델
투자	<b>스타트업 투자 허브로서의 실리콘밸리 위상 변화</b>
	① 실리콘밸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허브 ② 최근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이 새로운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

- 기술, 시장, 투자 등 각각의 트렌드는 상호 연계되어 향후 스타트업계 동향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기술+시장) 많은 스타트업들에 의해 구독·온디맨드 모델이 보편화되면서 향후 비즈니스 경쟁력은 모델 자체보다 큐레이션(구독), 수요·공급 매칭(온디맨드)을 정교화할 수 있는 AI 기술력에 기인할 것으로 보임
- (시장+투자) 중국 등 새로운 스타트업 허브에서 구독·온디맨드 관련 시장도 더 세분화될 것이며 특히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로서 확장성이 높은 온디맨드 모델 관련 유니콘이 추가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 (기술+투자) 실리콘밸리의 중국 스타트업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실리콘밸리의 AI 선순환 생태계는 중국 AI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되면서 더욱 글로벌화될 것으로 예상



## ■ 한국도 실리콘밸리 트렌드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기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리콘밸리와 같이 AI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선순환 연결고리 구축에 주력
  - 대기업 · 스타트업 · 대학기관이 연계된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AI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시장) 한국도 확장성(Scalability)이 큰 우버모델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실리콘밸리의 우버, 에어비앤비가 주도한 온디맨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차량, 숙박 등 규제로 인해 온디맨드 비즈니스의 불모지라고 불리고 있음
  - 세계시장에서 우버의 모델을 모방한 디디추싱, 그랩 등 차량 온디맨드 스타트업들이 우버의 뒤를 이어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스타트업이 전무함
    - \* 2016년 창업한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 ‘풀리스’는 네이버·SK 등으로부터 220억원 투자를 유치하며 큰 관심을 받았으나 택시업계의 반대와 정부의 규제로 최근 구조조정 위기를 겪고 있음
- (투자) 스타트업 투자처가 실리콘밸리에서 다변화되는 추세로 글로벌 스타트업 동향을 주시함으로써 중국 등 새로운 스타트업 시장 기회와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실리콘밸리의 한국 스타트업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어 한국 스타트업계 해외진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2017년 미국 페이팔·굿워터캐피털 등에서 550억원 투자를 유치

## [참고문헌]

### 보고서

- 빅 이코노미 동향과 시사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17
- 기술과 혁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9
- 중국 AI 기술, 미국을 추월할까, POSRI, 2017
-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AI) 발전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 해외 혁신창업 생태계 연구, IBK경제연구소, 2018.2
- Connecting talent with opportunity in the digital age, Mckinsey, 2015
- Global Tech Hubs Report, CB Insights, 2018
- Jeffrey Ding, "Deciphering China's AI Dream", Future of Humanity Institute, University of Oxford, 2018.3
- Thinking inside the subscription box: New research on e-commerce consumers, McKinsey&Company, 2018.2
- The changing market for food delivery, McKinsey, 2016.11
- 2018 Silicon Valley Index, Silicon Valley Institute for Regional Studies, 2018

### 언론자료

- 공유경제와 Mobile On-Demand Economy, 그리고 '부스러기 경제', 김진영, Vertical Platform, 2015.2.16
- 소유하는 시대는 끝났다... '구독 경제'가 뜬다, 조선위클리비즈, 2018.9.14
- '소유'도 '공유'도 싫다. 난 구독하며 산다, 머니투데이, 2018.8.2
- 새롭게 주목받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다섯곳, 조선비즈, 2017.11.29.
-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밸리로'... AI 경쟁력의 핵심 요인은?, 뉴스비전e, 2017.10.31
- 잠재가치 높은 '공유경제 비즈니스'현황 및 전망, 조영연, Platum, 2016.6.21
- 온라인 거물 아마존, 와비파커, 오프라인 진출하는 진짜 이유는?, 뉴스1, 2016.2.18
- 양면시장(Two Sided Market)과 한계비용 제로사회, 김진영, Vertical Platform, 2015.11.15.
- 한국 '공유경제 불모지' 오명 씻을까, 한국경제, 2018.10.18

In China, a Dot-Com D j -Vu, WSJ, 2018.10.13.

Peak Valley, Economist, 2018.9

Subscription E-Commerce Market Map: 57 Startups In One Infographic,  
CB Insights, 2017.7.7

## 웹사이트

씨비인사이트([www.cbinsights.com](http://www.cbinsights.com))

투자저널(<http://toozajournal.tistory.com>)

## **실리콘밸리를 통해 본 스타트업 트렌드**

Trade Focus 2018년 39호

발행인 | 김영주

편집인 | 신승관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8년 11월 6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